

AI 시대 전북의 미래 비전 제시한 이광형 KAIST 총장

“전북에 천재일우의 기회 왔다”

전북발전을 위한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인 화합교례회가 16일 오전 전주 라호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정읍 출신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광형 KAIST 총장(사진)을 특별강사로 초대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전북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당선인과 지역 주요 인사, 기관·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 총장의 강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 총장은 강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북의 미래를 걱정하지만 저는 오히려 전북에 역사적인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AI 혁명으로 산업과 경제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시기이며 이러한 변화는 전북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AI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인간의 정신노동까지 대체하는 새로운 문명 전환의 시대를 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AI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AI를 잘 만드는 사람과 국가가 미래를 주도하게 될 것이며 전북 역시 대한민국 AI 수도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6·3 선거 당선인 화합 교례회에서 특별 강연 “피지컬 AI 선점 기반 확보”... 전북의 가능성 확신



총장은 “현재의 기준이 아니라 2040년을 살아가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인재를 길러야 한다”며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에서도 AI 교육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의 핵심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전북에서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였다.

이 총장은 “현재의 생성형 AI가 입만 달린 AI라면 피지컬 AI는 눈과 손발을 가진 AI”라고 설명했다.

그는 “질문에 답만 하는 기존 AI와 달리 피지컬 AI는 실제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며 일을 수행하는 기술”이라며 “로봇과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이 모두 피지컬 AI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은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제조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반면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 등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나라”라

고 평가하며 피지컬 AI를 적용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지컬 AI 시대에는 제조 데이터가 핵심 경쟁력이 되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제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라며 “이 때문에 세계 AI 산업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의 가능성에 대해 그는 강한 확신을 나타냈다.

이 총장은 “전북은 이미 피지컬 AI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며 “국가 예산 확보와 연구개발 체계 구축,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투자 계획 등이 맞물리면서 세계 어느 지역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KAIST와 전북대학교가 공동으로 피지컬 AI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전북이 피지컬 AI 실증과 검증, 인증의 중심지가 된다면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전북을 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향후 다양한 로봇과 모빌리티 장비들이 서로 연결되고 협업하려면 표준화와 인증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북이 이러한 국제 표준과 인증 체계를 구축한다면 세

계적인 피지컬 AI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총장은 “연구개발과 실증단지, 기업 투자, 정부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며 “전북도와 시군 기업, 대학, 도민이 힘을 모은다면 전북은 대한민국의 새 세계적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연 말미에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유전자 가위 기술과 산업용 햄프(Hemp) 산업도 제안했다.

그는 “새만금과 같은 특별구역을 활용해 규제를 혁신한다면 바이오산업과 미래 농생명 산업에서도 전북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며 “미래 산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 40여분 동안 진행된 강연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참석자들은 AI와 피지컬 AI가 전북의 미래 산업 지평을 바꿀 핵심 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광형 총장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지금 전북에는 기회가 와 있다”며 “도민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함께 나아가면 전북은 세계가 주목하는 AI 혁신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미래, 도민과 함께’

이원택 도지사직 인수위,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 운영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신형식)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정 운영 방향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 제안 창구를 개설했다.

인수위원회는 16일부터 28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전북소통대로(policy.ja.go.kr)’ 홈페이지 지 인수위 전용 게시판 ‘당선인에게 바란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게시판을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도정 비전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지역 현안과 미래 발전 전략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와 각종 건의 사항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 분야는 첨단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복지·환경 개선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있다.

인수위원회는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도정 운영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 구상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단순한 민원 접수 창구를 넘어 민선 9기 전북의 비전과 정책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소통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형식 인수위원장은 “현장의 생생한 제안과 아이디어는 민선 9기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해 전북 대도약의 밑그림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이번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도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혁신당, 전북 기초의원 당선인 ‘최고위원’ 지명

이효진 원주군의원 당선인... 도당 “지역 중심 개혁정치 본궤도”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이효진 원주군의원 당선인(사진)의 최고위원 지명과 관련해 이를 적극 환영하며, 이번 인사가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치에 반영하고 지방정치를 당 혁신의 중심에 세우는 상징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전북도당은 이번 인사가 전북 정치의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앞으로 이 최고위원과 협력해 지역공정체 회복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효진 신임 최고위원은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뿌리가 단단해야 개혁의 나무가 자란다”며 지역발 개혁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조국혁신당이 주민 삶

의 변화를 이끄는 ‘생활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회의 성과를 통해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과 성과로 증명하겠다는 포부를 내놓았다.

정도상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 최고위원의 발인은 조국혁신당이 나아가야 할 지방정치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지역 중심 민생정치가 대한민국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당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이효진 최고위원은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뿌리가 단단해야 개혁의 나무가 자란다”며 지역발 개혁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조국혁신당이 주민 삶

/이만호 기자

“소통·협치 경정 리더십으로 전북 발전 이끌 것”

정종복 도의원, 13대 전반기 도의회 민주 원내대표 당선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정종복 의원(전주 3)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 당선인 42명은 16일 오후 의원총회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후보로 단독 등록한 정 의원을 추대 형식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정 원내대표는 앞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표해 원내 운영을 총괄하며 제13대 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원활한 의정활동을 이끌게 됐다.

한편, 정 의원은 1964년생으로 전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전북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공공행정 경험을 쌓아왔다.

전북특별자치도 서울강화속원장을 역임하며 수도권에서 학업에 매진하는 전북 출신 학생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강화속 운영을 통해 지역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데 이어 제13대 도의원으로 전주 3선거구에서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재선에 성공하며 도민들의 두터

운 신뢰를 얻고 있다. 정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복지 증진, 청년 지원 균형발전 정책 마련 등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정치 실현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인재 육성,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협치와 소통을 중시하는 정 종복 의원은 “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의정활동”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환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그동안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며 성과를 이뤄낸 장연국 전 원내대표의 뜻을 이어받아 소통과 협치가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일 내 운영 4대 핵심 약속을 제시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 당선인 42명이 16일 오후 도의회 의원총회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에 정종복 의원을 선출했다.

향후 의정 방향을 구체화했다.

정 원내대표가 제시한 핵심 과제는 △공정과 공평의 가치 실현을 통한 사회적 약자 중심의 따뜻한 복지 확대 △전시성·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정비하고 민생·복지 중심의 재정 운영을 실현하는 재정 정의 확립 △전북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K-컬처 분향 육성 △피지컬 AI 산업과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첨단 방위산업 육성, 제2차 공공기관 유치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다.

그는 특히 “전북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형 국책사업과 첨단산업 유치를 당력있게 집중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집행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지만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강력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겠다”며 “의회 본연의 역할과 위상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심을 잃지 않고 의원들과 함께 하나 된 원팀 민주당을 만들어 도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정책으로 실현하는 경청의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완주 남계리 유적 사적 지정 예고 환영”

윤수봉 도의원 “최종 고시까지 철저히 챙길 것”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완주, 사진)은 16일 ‘완주 남계리 유적’ 사적 지정 예고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17일, 복자 윤지충·권상연·유지현 등 조선시대 순교자 묘역이 포함된 완주 남계리 유적을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며, 하반기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윤수봉 의원은 문화건설위원회(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유적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24년 5월 초남이섬지의 종교문화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와 현지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2025년 4월 14일(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초남이섬지지역 전주교 유적 국가사적 현지심사에 직접 참가해 유적지의 역사적·종교적 가치를 피력하며 국가 사적 승격의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한 바 있다.

윤수봉 위원장은 “완주 남계리 유적이 국가 사적으로 승격 예고된 것은 이 지역의 소중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쾌거”라며, “그동안 발로 뛰며 사적 지정을 촉구해 온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하반기 최종 지정 고시까지 치밀 없도록 살피고 향후 유적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운영위, 제9대 의사일정 마무리

제1차 회의 열고 총 7건 안건 심사, 원안 가결

남원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주요 안건들을 심사하며 제9대 마지막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남원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남원시의회 의원등 공무원의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4건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주요 안건 중 남원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하던 공무재산 관리

계획을 소관 심임위원회로 분리해 심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공무원의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의 국외출장 심사 및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정보 공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기자

정부, 전국 공장·창고 19만동 화재안전 전수조사 착수

관계부처 합동 첫 대규모 실태조사... 9월부터 본격 점검

최근 공장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대규모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17일부터 관계 부처 합동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사망한 데 이어, 6

월 대전 한화에너지스페이스 화재로 5명이 숨지는 등 대형 화재 사고가 반복되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공장·창고의 화재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73만동 가운데 건축법상 화재 안전 규제가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 시설 약 19만동이다.

여기에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이나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고용노동부가 지정하고 위험 사업장도 포함된다.

실태조사에서는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등 화재안전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건축요건과 실제 시설을 비교해 불법 증축이나 무단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 확산 위험이 큰 샌드위치패널 사용 실태와 단열재·마감재의 난연 성능도 조사한다.

또한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 설치 실태, 비상구 폐쇄 여부, 복도 적치물

등 파난을 방해하는 요소를 점검하며,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의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초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가연물 관리와 화재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조사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이 수행한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건축사와 소방기술사 등 전문가 중심의 정밀조사반이 맡고, 일반 시설은 청년전문인력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본조사반이 담당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